



山林資源造成의 綜合的 推進에 力點

造林局長 李 輔 植

今年은 2 千年代를 準備하는 山地資源化 10年計劃의 4 次年度로서 造林 및 育林事業等 山林資源造成 分野는 資源化 10年計劃을 蹉跎없는 推進을 爲하여 林業振興促進地域을 中心으로 經濟林을 擴充할 計劃으로 國庫 501億원, 地方費 196億원을 投入하여 造林 36千ha, 育林 307千ha, 砂防 443ha 등을 內實있게 推進할 計劃이며,

이외에도 國民들의 保健, 休息空間을 擴充해 나감으로써 날로 增加해 가는 山林의 公益機能을 充足시키기 爲하여 地方山林博物館의 建立과 樹木園의 造成 및 野溪砂防事業을 擴大 實施해 나감으로써 山林의 重要性과 고마움을 새롭게 認識시키는 契機를 마련하는等 山林資源造成 分野의 '91 年度施策을 綜合的으로 推進해나갈 計劃이다.

○造林 및 育林事業

造林事業은 國內材 自給基盤의 擴充을 爲해 솔잎혹파리 등 被害地와 形質不良林에 對한 樹種更新 造林에 가장 큰 比重을 두고 이를 重點 推進함과 아울러 農山村 景觀造成과 連繫하여 有實樹, 速成樹, 特用樹等 短期所得樹種 造林도 並行하면서 山主希望과 長期木材 需給에 符合하고 適地適樹가 잘 履行될수 있도록 有用闊葉樹 造林도 持

續的으로 實施해 나갈 方針이다.

또한 現在 大部分의 山林이 幼齡林으로 보다 적극적인 施策을 필요로 하는 育林事業은 確實한 造林成果와 林木의 質的, 量的 生長促進을 기할 수 있도록 풀베기, 稚樹 가꾸기, 間伐事業에 역점을 두고 推進을 하면서 덩굴除去事業과 優良天然林의 保育事業도 적극 推進할 方針이다.

아울러 今年부터 새로이 重點 推進할 몇 가지 施策事業을 소개하면,

첫째, 그간 추진해왔던 綠化爲主의 造林事業에서 소홀했던 主要地域의 經濟林造成을 擴大하기 爲하여 優先 “多目的 經濟林造成事業”을 今年度부터 5 個年計劃으로 樹立, 高速道路邊 山林부터 樹種更新 大苗造林과 철저한 育林作業을 實施하여 多目的 經濟林으로 조성하고 아름다운 國土景觀과 山地生産性を 높이는 經濟林으로 가꾸어 나갈 計劃이다.

둘째, 이제까지 지원하지 못했던 산불 및 솔잎혹파리 被害地에 대한 樹種更新 復舊造林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爲하여 植栽費를 優先 8백ha, 81百萬원 (ha當 支援額 144,600원, 180,750원중80%)를 支援할 計劃이며, 앞으로 이를 점차 擴大하기 爲하여 關係部署와 積極的으로 協議할 계획이다.

